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쌀전업농가의 소득분석

김경진¹ · 김재홍^{2*}

Analysis of Income Variation of Professional Rice Cultivators Supported by the Farmland Scale Improvement Project

Kyung-Jin Kim¹ · Jai-Hong Kim^{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armland scale improvement project and to prese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long-term improvement scheme of this project.

Professional rice cultivators' farming scale after receiving the farmland scale improvement fund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situation before receiving the fund support. The average paddy fields increased by 220% (from 2.75ha to 8.82ha), the average upland increased by 27% (from 0.44ha to 0.56ha), and the average orchard land increased by 44% (from 0.25ha to 0.36ha).

The rice production costs per 10a are estimated as 608,678won for below 3ha, 488,721won for 3-6ha, 487,431won for 6~10ha, and 425,313won for over 10ha, which decreased with increasing farming scale.

The effects of the farmland scale improvement project on income vari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verage farm household income for all subjects has increased by 223 % (from 40,517,000won to 90,295,000won). 2) For each category, the results show that average farm household income has

¹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²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 교신저자 : 김재홍(E-mail: jaihong@cnu.ac.kr, Tel: 042-821-6747)

increased by 9,766,000won for below 3ha, 35,898,000won for 3~6ha, 42,822,000won for 6~10ha, and 72,697,000won for over 10ha.

Key words : Farmland scale improvement project, Professional rice cultivator, Rice production cost, Farm household income

I. 서 론

WTO와 FTA로 대변되는 세계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는 우리나라 쌀 생산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쌀 생산의 규모화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쌀전업농 제도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소수의 전문 경영체에 집중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제고시키려고 2013년까지 6ha 이상 쌀전업농 7만호 육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농촌에는 아직도 소규모 영세농들이 많이 있고, 또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 80,393호 중에서도 약 30천호는 영농규모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13년까지 6ha이상 쌀전업농 7만호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 참여 소규모 쌀전업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한 쌀전업농가의 영농실태를 분석하고,

생산비 및 경영비의 변화를 추적하고 나아가 소득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조사대상 농가의 현황

1.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현황

조사에 응한 71호 농가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쌀전업농가의 규모는 6ha 이상이 70% 매우 컸으며, 평균연령은 49.3세이었다. 계층별로는 3~6ha 미만 농가가 47.6세로 가장 젊었고, 3ha미만 농가가 54.2세로 가장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논 경영규모별 소유 및 임차현황

전체 조사농가의 임차 논 비율은 52.1%로 전체 경영 논의 과반수 이상이 임차 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논 임차현황을 보면 3ha미만 농가의 임차농지 비율이 40.7%로 가장 낮았고, 계층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지의 비율도 점차 확대되어 6~10ha미만 농가의 임차비율이 58.9%

표 1. 규모별 조사농가 현황

구 분	계	3ha미만	3~6ha	6~10ha	10ha이상
농가수(호)	71	5	17	22	27
평균연령(세)	49.3	54.2	47.6	50.1	48.8

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임차면적 중 공사지원면적과 자력으로 인한 관행임차면적을 살펴보면, 3~6ha미만의 농가에서만 관행임차면적이 공사지원면적보다 많았고, 그 외에서는 공사지원면적이 관행임차면적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10ha이상 농가의 임차농지 비율은 48.4%로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경영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소유농지의 비중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논 경영규모별 복합영농 현황

전체 조사농가의 경영규모는 평균 약 9.74ha이었는데 농지별로는 논이 8.82ha이고, 밭과 과수원이 각각 0.56ha와 0.36ha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3ha미만에서 논 면적이 2.36ha로 가

장 적었지만, 논을 제외한 밭과 과수원의 규모는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10ha이상 규모는 논 면적 외에 밭 면적(0.87ha)에 있어서도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고, 6~10ha미만 규모는 밭과 과수원 면적이 각각 0.22ha와 0.09ha로 전체 규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규모별 주요농기계 보유 및 농작업타현황

가. 주요농기계 보유현황

쌀전업농의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트랙터의 경우 호당 1.6대, 이앙기는 0.9대를 보유하고 있어 쌀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운, 정지, 이앙만큼은 대부분의 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콤바인과 건조기는 각각 호당 0.7대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규모가 큰 쌀전업농 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과 건조 등 일부 농작업은

표 2. 논 경영규모별 호당 논 소유 및 임차현황

구 분	농가수 (호)	호당농경영 면적(ha)	자 가	임 차(ha)			임차비율 (%)
				소 계	공사지원	관행(자력)	
3ha미만	5	2.36	1.40	0.96	0.59	0.38	40.7
3~6ha미만	17	4.13	1.74	2.40	1.13	1.26	58.0
6~10ha미만	23	7.26	2.99	4.28	2.20	2.08	58.9
10ha이상	26	14.51	7.49	7.03	3.54	3.48	48.4
전체평균	71	8.82	4.22	4.60	2.32	2.28	52.1

표 3. 논 경영규모별 호당 경영규모

구 분	경영면적(ha)			
	계	논	밭	과수원
3ha미만	3.29	2.36	0.57	0.36
3~6ha미만	5.44	4.13	0.55	0.76
6~10ha미만	7.57	7.26	0.22	0.09
10ha이상	15.71	14.51	0.87	0.33
전체평균	9.74	8.82	0.56	0.36

위탁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논 경영규모가 확대 될수록 농기계보유량도 증가하지만, 규모가 확대 될수록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3~6ha미만) 이상에서는 농기계보유량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쌀전업농가가 보유할 수 있는 농기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유량은 차이가 적을지라도 기계의 마력(馬力)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면 농기계보유량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생산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쌀전업농가에 대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나. 논 경영규모별 농작업 수 · 위탁현황

대규모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쌀전업농의 농작업 수탁은 고가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조사자료에 의하

면 쌀전업농의 수탁분야는 경운 정지에서부터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농작업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부의 경우는 완전수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경운, 정지, 이앙, 수확, 건조 작업은 모든 계층에서 수탁을 하고 있으나, 방제, 운반, 짚단 묶기 등은 비교적 경영규모가 큰 계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 농가에서 모든 작업을 수탁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농업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규모별 수탁현황을 보면 경영규모가 확대 될수록 수탁면적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 농가일수록 대용량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영규모가 6~10ha미만과 10ha이상의 규모에서는 수탁면적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탁면적이 무한정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논 농업의 특성상 작업가능시기가

표 4. 논 경영규모별 호당 주요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3ha미만	0.8	0.4	0.8	0.4
3~6ha미만	1.6	0.5	0.9	0.5
6~10ha미만	1.7	0.8	0.9	0.9
10ha이상	1.7	0.9	1.0	0.8
평균	1.6	0.7	0.9	0.7

표 5. 경영규모별 농작업 수탁현황

(단위 : ha)

구 분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운반	짚단 묶기	완전수탁	합계
3ha미만	2.33	2.33	1.13	-	1.92	1.53	-	-	-	9.25
3~6ha미만	3.63	1.76	1.22	0.12	6.57	1.29	1.67	4.31	-	20.57
6~10ha미만	6.08	6.08	4.26	0.35	8.97	3.38	1.99	2.75	-	33.85
10ha이상	5.71	5.71	5.55	0.23	8.08	5.96	2.17	1.04	0.17	34.60
평균	5.08	4.62	3.78	0.23	7.65	3.69	1.84	2.31	0.06	24.57

일정기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경영규모가 큰 쌀 전업농일지라도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농작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층별 농작업 위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규모별로는 쌀전업농 중 경영규모가 비교적 적은 3ha미만 규모에서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경운, 정지, 이앙, 수확, 건조 등 전반적인 단계에서 농작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규모에서는 이앙, 수확, 건조 등의 일부작업만을 소규모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분석

1. 지원전후 경영규모 및 영농형태 변화

조사결과 영농규모화사업에 참여한 쌀 전업농

가의 경영규모는 논만이 아니라 밭과 과수원에서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전·후 조사농가 평균 논 면적은 약 6.07ha 증가하였고, 밭은 0.12ha(매입0.07ha, 임차 0.05ha), 과수원은 0.11ha(매입 0.09ha, 임차 0.02ha) 증가하여 전체농지 면적이 6.29ha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쌀전업농가의 논외에도 경영규모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아마도 쌀 소득 증가에 따른 자산증식과 함께 대형 농기계의 도입에 따른 잉여 노동력의 활용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논 경영규모 변화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3ha미만 규모가 약 0.09ha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6ha미만 규모부터는 계층 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3~6ha규모에서 지원전후 약 2.94ha, 6~10ha미만 규모에서 약 5.24ha, 그리고 10ha이상 규모에서는 약 10.45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평균 증가 논 면적 6.07ha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매입확대는 2.85ha이

표 6. 경영규모별 농작업 위탁현황

(단위 : ha)

구 분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운반	짚단뭉기	합계
3ha미만	0.40	0.40	0.40	-	1.33	0.40	-	-	2.93
3~6ha미만	-	-	0.59	-	1.79	-	-	-	2.38
6~10ha미만	-	-	0.35	-	1.16	0.32	-	-	1.83
10ha이상	-	-	0.38	-	1.62	-	-	0.82	2.82
평균	0.03	0.03	0.42	-	1.49	0.13	-	0.30	2.49

표 7. 지원전후 경영규모 변화

(단위 : ha)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증 감			
	계	논	밭	과수원	계	논	밭	과수원	계	논	밭	과수원
3ha미만	1.88	1.61	0.43	0.36	3.22	2.36	0.57	0.36	0.09	0.75	0.15	-
3~6ha미만	2.29	1.55	0.34	0.61	5.44	4.13	0.55	0.76	2.94	2.58	0.21	0.15
6~10ha미만	2.17	2.05	0.20	0.09	7.57	7.26	0.22	0.09	5.24	5.21	0.03	-
10ha이상	4.66	4.38	0.75	0.14	15.71	14.51	0.87	0.33	10.45	10.11	0.12	0.19
평균	3.11	2.75	0.44	0.25	9.67	8.82	0.56	0.36	6.29	6.07	0.12	0.11

고, 임차확대는 3.22ha로 나타나 매입보다는 임차에 의한 규모 확대가 약간 많았다. 그러나 최상위 계층인 10ha이상 계층에서는 증가면적 10.13ha중 5.37ha가 매입을 통해 이루어졌고, 4.76ha는 임차로 확대됨으로써 오히려 매입확대가 임차확대보다 많아 다른 계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모습은 10ha이상 대규모 농가의 경우 전체 농가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농지를 매입 확대할 수 있는 자본력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쌀 전업농가의 지원전후 재배작물 변화는 쌀의 경우 재배면적이 2.75ha에서 8.82ha로 6.07ha증가하였으나 답리작인 맥류와 시설채소 그리고 과수는 각각 0.43ha, 0.06ha, 0.12ha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밭작물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 경영규모별 쌀 생산비 및 경영비 분석

전체 조사농가 평균 10a당 경영비는 408,078원으로 조수입(901,121원)의 4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 보면 3ha미만 계층은 10a당 경영비가 481,809원으로 조수입(879,846원) 대비 54.7%로 다소 비효율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ha미만 규모는 경영비가 조수입 대비 48.3%이었고, 6~10ha미만 규모와 10ha이상 규모의 조수입 대비 경영비는 각각 43.6%와 42.9%로 낮아졌는데 경영규모가 확대 될수록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경영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와 수리비로 구성

표 8. 지원전후 논 경영규모 변화

(단위 : ha)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증 감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3ha미만	1.61	1.19	0.42	2.36	1.40	0.96	0.75	0.21	0.54
3~6ha미만	1.55	0.88	0.67	4.13	1.74	2.40	2.58	0.86	1.73
6~10ha미만	2.05	0.92	1.13	7.26	2.99	4.28	5.21	2.06	3.15
10ha이상	4.38	2.12	2.27	14.51	7.49	7.03	10.13	5.37	4.76
평균	2.75	1.37	1.38	8.82	4.22	4.60	6.07	2.85	3.22

표 9. 지원전 · 후 작목별 재배면적변화

(단위 : ha)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증 감				
	수도	맥류	밭작물	시설채소	과수	수도	맥류	밭작물	시설채소	과수	수도	맥류	밭작물	시설채소	과수
3ha미만	1.61	0.23	0.40	-	0.09	2.36	0.03	0.76	-	0.09	0.75	-0.21	0.36	-	-
3~6ha미만	1.55	0.04	0.20	-	0.54	4.13	0.10	0.35	0.11	0.76	2.58	0.06	0.15	0.11	0.22
6~10ha미만	2.05	0.15	0.17	0.05	0.07	7.26	1.28	0.19	0.07	0.07	5.21	1.12	0.02	0.03	-
10ha이상	4.38	0.87	0.82	0.01	0.08	14.51	1.04	0.65	0.07	0.30	10.13	0.17	-0.17	0.06	0.22
평균	2.75	0.39	0.44	0.02	0.19	8.82	0.82	0.44	0.08	0.31	6.07	0.43	-	0.06	0.12

표 10. 규모별 10a당 생산비와 경영비

구분	3ha미만	3~6ha미만	6~10ha미만	10ha이상	평균
평균경영면적	2.36	4.13	7.26	14.51	8.82
생산량	457	436	475	442	442
조수입	879,846	861,014	962,260	882,201	901,121
종묘비	8,872	10,751	9,626	10,164	10,040
비료비	21,801	27,216	33,476	28,082	29,180
농약비	19,203	35,014	37,018	44,595	38,058
영농광열비	3,795	3,875	3,494	3,634	3,655
유류비	8,304	15,629	15,114	18,961	16,166
기타재료비	5,143	7,820	6,637	6,505	6,767
수리비	283	598	493	439	484
소농구비	942	1,046	1,036	1,007	1,021
대농구비	238,614	170,111	180,779	137,040	166,281
영농시설상각비	1,344	1,283	1,324	1,306	1,309
위탁영농	62,582	24,669	10,717	9,639	17,316
임차료	93,106	105,342	106,194	103,919	104,235
고용노력비	17,820	12,468	13,444	13,566	13,566
경영비	481,809	415,822	419,352	378,857	408,078
고정자본용역비	9,724	12,940	14,912	11,467	12,813
유동자본용역비	7,116	7,340	7,469	7,526	7,434
자가노력비	110,026	52,619	45,698	27,463	45,208
생산비	608,675	488,721	487,431	425,313	473,533
소득	398,037	445,192	542,908	503,344	493,043
순수익	271,171	372,293	474,829	456,888	427,588

된 대농구비로 나타났는데 전체평균 경영비 대비 대농구비는 40.7%에 달했고, 특히 3ha미만 규모의 경우 대농구비가 경영비의 4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0a당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농기계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원전후 농가소득 변화

가. 분석방법

분석의 특징은 첫째,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쌀전업농가의 지원전·후 소득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2006년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원전 소득에 대해서도 추정을 시도하였다. 둘째, 쌀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농가의 총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쌀 전업농가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작업수탁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고, 농업소득은 다시 쌀 소득, 쌀 외 작물소득, 축산소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득 분석은 생산량 및 판매처별 판매가격 조사를 토대로 조수입을 산출하고, 조사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 경영비를 추정한 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지원후 소득은 쌀의 경우 비교적 세부적인 조

사를 통해 농가 현실에 접근하여 분석하려하였으나, 기타작물은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배면적만을 조사한 후 지역별 소득분석자료의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적용하였다.

현재소득은 영농규모, 작물별 재배면적, 농기계 수위탁 현황, 생산량, 판매처별 판매량 및 단가를 조사하여 조수입을 구하고, 영농방법, 고용노력비, 투입물재 등을 조사하여 경영비를 분석한 후 작물별 소득을 산출하였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기 전 소득은 지원전 경영규모, 작물별재배면적, 농기계보유현황, 농기계수위탁면적 등 영농자원 현황만을 조사한 후 농법과 생산량, 판매단가 및 수량 등 기타 조건은 현재시점의 상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전 소득분석은 지원전 시점의 소득분석이 아니라 지원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즉, 경영규모나 작물재배면적, 농기계 등 영농패턴은 변화가 없이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렀다는 가정을 하고 현재 시점의 영농기술, 생산량, 판매조건 등을 적용함으로써 경제변화에 따른 과거와 현재의 물가차이 또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의 소득을 추정하기에는 용이한 반면 농업기술과 경

제의 발전 및 농가의 경영규모나 작물재배 추세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좀 더 객관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원전후 농가소득변화

1) 쌀 소득 변화

농 경영규모별 쌀 소득은 조사대상 농가 전체의 경우 지원전 13,494천원에서 지원후 44,973천원으로 약 31,479천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층별로는 3ha미만 규모에서 약 2,781천원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3~6ha미만 규모에서 약 12,097천원, 6~10ha미만 규모에서 28,572천원, 그리고 10ha이상 규모에서 52,241천원의 소득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층별 소득증가액을 계층별 평균 증가면적으로 나눈 ha당 소득증가액은 3ha미만 규모에서 369만원/ha, 3~6ha미만 규모에서 468만원/ha, 6~10ha미만 규모에서 548만원/ha, 10ha이상 규모에서 516만원/ha으로 나타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득도 증가하지만 일정규모(14.5ha) 이상이 되면 소폭 감소하는 이른바 수확체감현상이 나타났다.

표 11. 논 경영규모별 지원전후 쌀 소득

(단위 : 천원, 원)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소득변화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3ha미만	14,148	7,493	6,656	20,764	11,328	9,436	2,781
3~6ha미만	12,948	6,905	6,043	35,594	17,454	18,140	12,097
6~10ha미만	19,790	9,117	10,674	69,860	30,614	39,246	28,572
10ha이상	38,295	16,120	22,175	128,037	53,620	74,416	52,241
평균	24,531	11,037	13,494	79,502	34,530	44,973	31,479

* 조수입 = 단위면적당 생산량 × 비재배면적 × 판매방법별 단위당 판매가격(공공비축, 산물벼, 개별출하 등)

2) 기타작물 소득 변화

쌀전업농가의 쌀 외 기타작물에 대한 소득 변화를 보면 표 12와 같다. 지원전 12,052천원에서 지원후 19,507천원으로 약 7,455천원의 소득 증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기타작물의 소득증가는 논 규모 증가에 의한 답리작의 재배면적 증가뿐 아니라 밭과 과수원의 규모 확대에 의해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3~6ha미만 규모에서 가장 큰 비율의 소득증가가 있었고, 6~10ha미만 규모는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3) 총 농업소득 변화

쌀 소득, 기타작물 소득, 축산소득을 총망라한 농업소득은 지원전 33,166천원에서 지원후 78,044천원으로 44,878천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층별로는 3ha미만 규모의 농업소득이 8841천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상위계층으로 이행함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되어 10ha이상 규모에서는 68,633천원의 소득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쌀전업농가의 논 경영규모 확대가 쌀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작물소득과 축산소득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농업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쌀 소득 증가 외에도 기타농업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쌀 소득 증가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투자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농업소득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추론에 무리가 없으므로 쌀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가 농업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지원전·후 농기계 수탁 소득

조사대상 쌀전업농가의 전체평균 농기계 수탁 소득은 지원전 6,479천원에서 지원후 9,135천원으로 약 2,656천원의 소득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경영규모별로 보면 3ha미만 규모의 농기계 수탁소득 증가액이 1,154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3~6ha미만 규모의 증가액이 4,254천원으로 가장

표 12. 논 경영규모별 기타작물 및 축산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소득변화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3ha미만	9,970	3,206	6,764	16,426	4,885	11,542	4,777
3~6ha미만	17,536	5,704	11,832	37,146	12,649	24,496	12,664
6~10ha미만	9,425	3,532	5,893	14,330	5,768	8,561	2,668
10ha이상	28,168	9,507	18,661	43,385	15,925	27,460	8,799
평균	18,269	6,217	12,052	30,580	11,073	19,507	7,455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소득변화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3ha미만	4,000	520	3,480	5,990	1,227	4,763	1,283
3~6ha미만	5,798	3,162	2,636	20,824	12,125	8,699	6,063
6~10ha미만	17,855	8,770	9,085	25,357	11,269	14,087	5,002
10ha이상	22,421	12,041	10,380	42,260	24,287	17,973	7,593
평균	15,664	8,044	7,620	29,097	15,534	13,564	5,944

표 13. 지원전·후 논 경영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소득 변화
	쌀소득	기타 작물	축산 소득	계	쌀소득	기타 작물	축산 소득	계	
3ha미만	6,656	6,764	3,480	16,900	9,436	11,542	4,763	25,741	8,841
3~6ha미만	6,043	11,832	2,636	20,511	18,140	24,496	8,699	51,335	30,824
6~10ha미만	10,674	5,893	9,085	25,652	39,246	8,561	14,087	61,894	36,242
10ha이상	22,175	18,661	10,380	51,216	74,416	27,460	17,973	119,849	68,633
평균	13,494	12,052	7,620	33,166	44,973	19,507	13,564	78,044	44,878

표 14. 논 경영규모별 지원전·후 농기계 수탁 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소득 변화
	조수입	비용	소득	조수입	비용	소득	
3ha미만	1,869	224	1,645	2,419	569	1,850	1,154
3~6ha미만	3,292	876	2,416	7,275	605	6,670	4,254
6~10ha미만	7,497	1,093	6,404	10,678	807	9,872	3,468
10ha이상	12,333	2,200	10,133	13,004	1,509	11,495	1,362
평균	7,865	1,385	6,479	10,133	999	9,135	2,656

표 15. 논 경영규모별 지원전·후 기타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전			지원후			소득변화
	수입	비용	소득	수입	비용	소득	
3ha미만	2,480	-	2,480	3,200	-	3,200	720
3~6ha미만	1,353	-	1,353	2,632	459	2,173	820
6~10ha미만	216	129	87	4,134	935	3,199	3,112
10ha이상	1,731	788	942	6,832	3,188	3,644	2,702
평균	1,202	330	872	4,697	1,580	3,116	2,245

높았다. 반면 최상위 계층인 10ha이상 규모는 1,362천원이 증가하여 두 번째로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5) 지원전·후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겸업소득, 사업의 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쌀전업농가의 현재 기타소득은 전체평균 3,116천원이었으며, 논 경영규모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전후를 비교해 보면 지원후의 소득이 3~4배 이상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형농기계를 보유하게 된 농가의 토목공사 등의 수탁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 지원전·후 농가소득 변화

쌀전업농가의 전체소득은 지원전 40,517천원에서 지원후 90,295천원으로 49,778천원 증가하여 지원전보다 2배 이상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소득 (40,869천원)과 비교해 볼 때 쌀전업농가 평균소득이 약 2.2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IV. 결 론

1990년부터 18년간 시행되어온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쌀전업농 중 71호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논 경영규모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계층별 호수는 3ha미만 5호, 3~6ha미만 17호, 6~10ha미만 23호, 10ha이상 26호였다.

사업의 성과지표는 논 경영규모별 쌀 소득, 쌀 외 기타작물 소득, 축산소득 등 농업소득, 그리고 농기계수탁소득, 기타소득 등 농외소득을 포괄하는 농가소득 전반에 대한 지원전·후 변화이다.

분석결과 쌀전업농의 농지규모는 논외의 경우 지원전 2.75ha에서 지원후 8.82ha로 6.07ha증가했고, 밭은 0.44ha에서 0.56ha로 0.12ha증가했으며, 과수원은 0.25ha에서 0.36ha로 0.11ha증가하였다.

논 경영규모별 10a당 생산비는 3ha미만 계층이 608,678원, 3~6ha미만 계층이 488,721원, 6~10ha

미만 계층이 487,431원, 10ha이상 계층이 425,313원으로 추정되어 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낮아졌는데, 10ha이상 계층의 생산비는 3ha미만 계층에 비해 30%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전·후 규모별 쌀 소득은 3ha미만 계층이 2,781천원, 3~6ha미만 계층이 12,079천원, 6~10ha미만 계층이 28,572천원, 10ha이상 계층이 52,241천원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31,479천원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 소득을 포함한 지원전·후 농업소득은 3ha미만 계층이 8,841천원, 3~6ha미만 계층이 30,824천원, 6~10ha미만 계층이 36,242천원, 10ha이상 계층이 68,633천원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44,878천원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소득에 농기계수탁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지원전후 농가소득변화는 3ha미만 계층이 9,766천원, 3~6ha미만 계층이 35,898천원, 6~10ha미만 계층이 42,833천원, 10ha이상 계층이 72,697천원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49,778천원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쌀전업농가의 쌀 재배면적 증가는 단위면적당 경영비 절감과 쌀 소득 증가를 가져 오고 이는 다시 농기계 등 영농기반의 확충을 촉

표 16. 논 경영규모별 지원전·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전				지 원 후				증 감
	계	농업 소득	농기계수 위탁소득	기타 소득	계	농업 소득	농기계수 위탁소득	기타 소득	
3ha미만	21,025	16,900	1,645	2,480	30,791	25,741	1,850	3,200	9,766
3~6ha미만	24,280	20,511	2,416	1,353	60,178	51,335	6,670	2,173	35,898
6~10ha미만	32,143	25,652	6,404	87	74,965	61,894	9,872	3,199	42,822
10ha이상	62,291	51,216	10,133	942	134,988	119,849	11,495	3,644	72,697
평균	40,517	33,166	6,479	872	90,295	78,044	9,135	3,116	49,778

진하며, 확충된 영농기반은 10a당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시켜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고 다시 소득 증가와 경영규모 확대를 유발하는 선(善)순환을 함으로써 쌀전업농가의 실질소득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전업농가 평균 소득 증가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쌀 소득 증가액(31,479천원)으로 농가소득 증가액(49,778천원)의 63%를 차지하고 다음이 기타작물소득 증가액(7,455천원)으로 농가소득 증가액의 약 15%를 차지한다. 따라서 영농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논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갈럽앤컴퍼니. 2003. 영농규모화사업 평가와 발전 방안.
2. 김정부 외 5인. 1995. 농지규모화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정부 외 4인. 1998.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홍상, 이형순. 2000. 영농규모화사업의 쌀생산비 절감효과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농업기반공사. 2004. 대규모쌀전업농 소득 및 생산비조사분석.
6. 농촌진흥청. 2006. 농축산물소득자료집.
7. 농협중앙회. 2006. 농협조사월보.
8. 박준근, 박평식, 송경환. 2003. 세계의 쌀 산업동향.
9. 통계청. 2007. 농가경제통계.
10. 한국농촌공사. 2007. 2007년도 농지은행사업평가회.